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	1
2. 주요 통계	3
3.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출범과 전망	4

주요 동향

◇ 美 정부폐쇄 지속(2주째), 부채한도 증액 협상 개시

- 공화당의 '부채한도 6주간 임시 증액 방안' 관련 10.10자 백악관 회동은 결론 없이 종료되었으나 대화를 지속키로 하는 등 디폴트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(WP)
- (美 재무장관, Fed 의장)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시한전 해결 전망

◇ 美 FOMC 9월 의사록, 양적완화조치 규모감축 연내 실시 필요

- 연준위원 대부분은 연내 양적완화조치 규모감축 필요, 양적완화조치 종료시기 내년 중반 적정

◇ IMF,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.1% → 2.9%로 하향

- 美정부부채한도 증액 논쟁 및 신흥국에서의 추가 자본유출 발생 가능성 등이 원인
- '1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향 : 3.8% → 3.6%

◇ 中 인민은행, ECB와 3년간 최대 3,500억위안 규모 통화스왑 체결 합의

- 역외 위안화 유동성 확대 등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목적
- 우리나라와의 3,6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왑에 이어 中이 외국 중앙은행과 체결한 2번째로 큰 규모

① 외환시장

- (원-달러, 원-엔) 원화는 美 정부 부채한도 증액협상 관련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며 美 달러화 대비 소폭 약세, 엔화 대비 강세
- (엔-달러, 달러-유로) 美 달러화는 연방정부 폐쇄와 부채한도 증액 관련 협상에 대한 기대로 엔화와 유로화 대비 소폭 강세

구 분	'12년말	'13. 10. 4	'13. 10. 11	전주비
₩/US\$	1,070.6	1,070.3	1,071.4	1.1
₩/100¥	1,235.0	1,102.6	1,088.7	△13.9
¥/US\$	86.75	97.07	98.41	1.34
US\$/€	1.3192	1.3623	1.3533	△0.009

② 채권시장

- (韓 국채금리) 美 국채금리 상승과 코스피 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
- (美 국채금리) 美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 관련 우려 등으로 상승

구 분 (%)	'12년말	'13. 10. 4	'13. 10. 11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2	2.83	2.86	0.03
미국 국채(10년)	1.76	2.64	2.69	0.05

③ 주식시장

- (韓 KOSPI) 美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협상 타결 기대감 및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 [(10.4) 1,996.98 → (10.11) 2,024.90]
- (美 DJIA) 美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상승 [(10.4) 15,072 → (10.11) 15,237]

2 주요 통계

- ① **외국환보유액(9월)** : 3,369.2억 달러로 전월말(3,310.9억 달러) 대비 58.3억 달러 증가
 - 유로화 등의 강세에 따른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,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기인
 -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
- ② **산업생산(8월)** : 광공업·서비스업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.0% 증가, 전년동월대비로는 2.8% 증가
 -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1.8%, 전년동월대비로는 3.3% 각각 증가
 -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.5%로 전월에 비해 2.3%p 상승
- ③ **설비투자(8월)** :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0.2%, 전년 동월 대비로는 4.6% 증가
 - 기계수주는 전자 및 영상음향통신,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6.4% 증가
- ④ **BDI지수** : 1,985로 전주대비 99point 하락
 -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하락 추정
 - HRCI 지수는 0.3point 상승한 510.0을 기록 (10.9)
- ⑤ **유가** : WTI유는 국제에너지기구(IEA) 원유공급증가 전망으로 하락, Brent유와 두바이유는 리비아 총리 납치 사태로 상승

(US\$/배럴)

유 종	10월 4일	10월 11일
WTI유 현물	103.75	101.93
Brent유 현물	109.46	110.95
두바이유 현물	104.99	107.08

- ◆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(이하 상하이 FTZ) 정식 출범('13.9.29)에 따라 자유무역시범지대의 설립 배경, 주요 개방내용(금융 및 물류)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.

1. 설립 배경: 성장모델 전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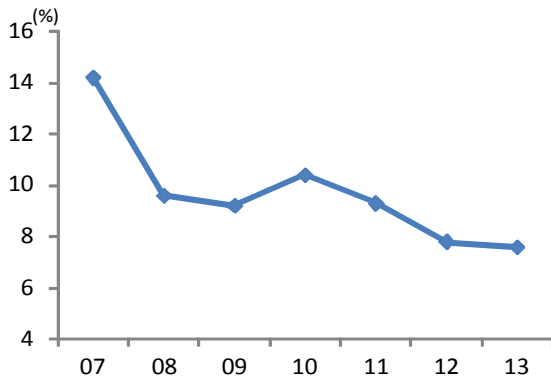
□ 기존의 수출·투자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내수·소비 중심의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진행 중

- '01년 WTO 가입 이후 수출·투자 중심 정책으로 10%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, 과잉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

- '12년 중국 고정자산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46.1%로 브라질의 18.1%, 인도의 29.6%, 한국의 26.7%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

* 가계지출/GDP(%, '12년 기준): 35.7(중국), 62.3(브라질), 60.2(인도), 53.5(한국)

중국 경제성장률



자료: IMF, 중국국가통계국

'12년 지출별 성장 기여도(%)

국 가	가계지출	고정자산투자
중 국	35.7	46.1
한 국	53.5	26.7
브라질	62.3	18.1
인 도	60.2	29.6
러시아	48.1	22.0

자료: World Bank

□ 금년 초 출범한 신지도부(시진핑 주석, 리커창 총리)는 개혁·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내수·소비 위주의 질적성장 전략 확립을 위해 노력

- 상하이 FTZ에서 서비스업(금융, 물류 등)을 중심으로 개혁·개방 정책의 효과성을 실험한 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

2. 주요 개방내용

- (개요) 금융, 물류 등 6개 서비스 분야, 23개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개방조치 실시
 - 개방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(Negative List) 방식으로 관리하여 Positive 방식 대비 투자영역 제한 완화, 외자기업 설립 절차 및 기간 단축 전망

< 상하이 FTZ 의 위치, 면적 및 접근성 >

- ◆ (지정대상) 현재 운영 중인 와이가오차오 보세구,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원구, 푸동공항종합보세구, 양산보세항구를 통합 지정



- ◆ (면적) 총 28.8km²
(여의도 면적의 3.4배)
- ◆ (접근성) 상하이 중심가에서 반경 50km 내 위치
(차량이동시 1시간 소요)

□ (금융) 금융서비스 부문 개방 및 일부 제도적 규제 완화 추진

- (금융서비스) 외자은행 및 합자은행 설립, 자국은행의 역외금융 업무 취급 등을 허용하였으나, 그 이후 업종별 지분을 제한 등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
- (금융제도) 위안화 자유태환, 금리 자유화, 위안화 역외사용 등의 시범 실시 추진에도 불구하고,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규 결여로 외자은행 유치에 상대적으로 저조
 - 현재 4개 국영은행(중국공상은행, 농업은행, 건설은행, 중국은행) 등 8개 자국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으며, 외자은행의 경우 씨티은행, 싱가포르개발은행(DBS) 등 2개 은행만이 출장소를 설치

□ (물류) 외국선사에 해운업을 개방하고 기존 보세구역 정책 개선을 통한 보세구역의 효율성을 도모

○ (해운) 외국선사 선박의 중국 연안항과 상하이항 간 운항 금지 조치* 해제 및 외국자본의 국제선박관리회사 독자 설립 허용

* 현재까지 외국선사 선박은 중국 연안항에서 화물을 싣고 중국 이외의 국가로 출항해야 했기 때문에 부산, 홍콩, 싱가포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환적 물량을 유치

○ (보세구역) 기존에는 외부에서 보세구역으로 통관 시 신고 후 통관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상하이 FTZ에서는 통관 후 신고 방식을 허용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

3. 향후 전망

□ 시장개방 수준 및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, 상하이 FTZ의 단기적 성과도출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견해도 있으나,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점진적 자유화에 따른 성공 가능성 상존

○ (금융) 단기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, 중장기적으로 상하이 FTZ가 위안화 국제화의 거점 역할 수행 가능

- 상하이 FTZ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현재 추이를 관망 중

- 다만, 중국 정부의 규제완화*와 위안화 수요의 급격한 증가**로 상하이 FTZ가 위안화 국제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견해 상존

* 대출금리 자유화('13. 7월), 중국 투자자의 외국계 헤지펀드 투자허용('13. 9월) 등

** '09~'12년 홍콩 내 위안화 표시 예금잔액·채권 발행규모는 연평균 140%, 113% 증가

- (물류)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요 항만의 환적 물량 감소 및 상하이 FTZ 내 보세구역제도의 효율화에 따른 수출입 물량 증가 예상
 - '12년 상하이항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세계 1위 수준(3,174만 TEU)이지만 환적 물량 비중은 5%에 불과하여 상하이 FTZ 출범으로 향후 상하이항의 국제 환적 물량 증가 예상
 - * 부산항의 '13년 상반기 처리 물량(1,740만 TEU)의 48%를 차지하는 환적 물량 중 중국 환적화물 비율이 31%에 달하고 있어 상하이 FTZ 출범으로 부산항의 환적물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불가피
 - 상하이 FTZ 내 보세구역 제도 효율화와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투자 증가로 향후 동 FTZ 내 제조 및 가공과 연계된 수출입 물량 증가 전망

4. 시사점

- 상하이 FTZ 내 규제 완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별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필요
 - (금융) 위안화 취급업무(위안화 무역결제 업무 취급 및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판매 등) 확대를 통한 위안화 수요 증가에 대응 필요
 - 향후 중국의 개방조치 확대에 대비하여 위안화 여·수신 업무 수행 및 직접금융시장 참여(위안화 회사채 발행 및 인수) 가능성을 감안한 중장기적 중국시장 진출전략 수립 요망
 - (물류) 환적화물의 규모와 목적지, 선사 및 화주별 특징에 따라 세분화된 마케팅전략 시행을 통한 환적화물 이탈 최소화
 -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인프라(특수선·초대형 컨테이너터미널 등) 건설, 항만배후단지 확대 등을 통한 물류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
 - (기타 서비스업) 6개 개방 분야 중, 전문(법률, 신용조사 등)·문화(공연기획, 문화시설 등)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방안 마련 필요